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심사 의혹... “선정 결과 바뀔 수도”

박찬대 의원,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
감사 결과, 대학진단평가에 미반영
법적 근거 없이 진행... 변별력 부족

D 대학 자체진단 보고서

권익위 지적(적발) 내용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대학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부가 그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부실 평가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됐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 또는 우수 사례 등 정성적 실적

| 역량 | 성취주기 | 프로그램 | 우수 사례 | 학습역량 |
|------|------|------------------|---|---------------------|
| 기본역량 | 공통 | 대학발전 학습능력강화 프로그램 |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 향상 | ● ● ● ● ● ● ● ● ● ● |
| | 기조 | CNU RC 프로그램 | 연말 특강, 2021년도 우수사례 발표회, 2021년도 우수사례 발표회 | ● ● ● ● ● ● ● ● ● ● |

특히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쳤지만, 심사 결과에 반영은 되지 않았고, 해당 학교 대부분은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다.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과 학생 간 점심시간동안 짧게 이뤄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해 이뤄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묻는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 학교명 | 예산 | 지적(적발) 내용 |
|-----|-----------------------------|--|
| D대학 | 20억 1인-713만 원 직원 316명 | ○ 허위 등 부당실적 제출 확인 : 28명, 5,000만원 - 점심시간에 직원-학생간 연토 멘토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실적 등록 : 7명 - 멘토대상 상대로 유선 확인 - 퇴근 시간 이후 이루어진 교내 학생 안전지도활동이 실제로는 퇴근했다가 당일 23시경 복귀하여 실적인 전산 입력하고 퇴근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력(25명) -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된 사례 (1명) - 간부 위주로 일부만 조사한 것으로 총체적 부실 추정 |

특별감사 관련 대학의 진단 실적 제출자료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박찬대 의원

특히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쳤지만, 심사 결과에 반영은 되지 않았고, 해당 학교 대부분은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했다.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과 학생 간 점심시간동안 짧게 이뤄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해 이뤄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묻는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하거나,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인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이런 교육부 늦장 대응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대학으로 분류된 곳은 10곳에 달했다.

박찬대 의원은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 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반영 여부에 따라 선정과 미선정 대학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의 교육 여건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이 중 2개 대학의 교육과정은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타 대학과 통합됐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개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박찬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부실 의혹까지 일고 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잃은 상태에서 각 대학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종합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여러 문제 제기와 함께 고등교육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황을 보고·공유하면서 앞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차상위계층 3명 중 1명, 교육급여 못 받았다

최근 3년간 13만명 교육급여 못 받아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인정 기준 엄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교 학생 3명 중 1명이 교육급여 선정에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만 13만 명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명(30%)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수업료, 교육 활동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교육복지예산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통해 교재와 학습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같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따져보니 교육급여 소득인정 기준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엄격했다. 차상위계층보다 교육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구조다.

이탄희 의원은 "실제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자동차 재산가액 등 상대적으로 교육급여의 소득인정항목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았고 복잡하다"며 "중위소득 50% 선정기준이 교육급여 따로, 차상위계층 따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교육급여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했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분석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급여 예산

불용액은 약 800억 원으로 매년 20% 정도 사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0년 교육급여 예산은 23%가 삭감됐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교육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그러나 회의에서 차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총 14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리참석 10회, 불참 3회, 서면심의 1회로 단 한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만약 교육급여 예산의 불용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13만 명의 저소득층이 교육급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DNA+드론 챌린지' 최우수상

'시각및지능시스템 연구실' 대학원생

중앙대학교가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속에서 실종자를 찾아내야 하는 'DNA+드론 챌린지'에 참가해 인공지능(AI)·첨단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일 중앙대에 따르면, '시각및지능시스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5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대국민 참여형 DNA+드론 챌린지 2021'에 참가해 최우수상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시각및지능시스템 연구실 소속 김민기·김희광·목영현·박찬영·성정훈 학생은 제공된 실종자 데이터를 증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서 운용 중인 자체 드론을 활용했다. 조난자를 촬영한 '실사 데이터', 실종자 객체와 배경 영상을 합성한 '합성 데이터',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가상환경에서 생성한



중앙대 시각및지능시스템 연구실, DNA+드론 챌린지 수상 모습 /중앙대

'가상데이터' 등 추가 학습데이터를 생성해 실종자 데이터를 구축했다. 드론의 환경을 고려해 경량화 된 객체 검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실종자 검출 성능도 향상 시켰다.

박상규 총장은 "이번 수상소식은 뛰어난 중앙대의 AI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특히 기쁜 일이다. 앞으로도 중앙대는 미래 학문의 중심에 설 인공지능 관련 연구역량 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대한한글검협회와 인재양성

문화사업 공동 추진 등 상호 협력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윤석, 이하 서울문화예술대)가 지난 달 15일 사단법인 대한한글검협회(회장 박승철)와 상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4일 서울문화예술대에 따르면, 양기관은 미래문화예술 인재양성을 위해 ▲주요 시책 홍보 협약 ▲교육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및 정보자료 교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 사업 공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대한한글검협회는 다양한 한글과 무예를 바탕으로 세종의 정신과

민족의 혼이 깃든 한글 무예 '한글검'을 통해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한글이 문자를 넘어 무예를 구현할 수 있는 문무 체계였음을 '한글검'을 통해 입증하고 한글과 전통무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서울문화예술대 항공보안학과(학과장 조성환)는 서울 4년제 문화예술특성화대학교로 경찰학, 경호학, 무도 등의 학문과 항공의 융·복합 지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적용한 '스마트보안' 공공인재를 양성한다.

서울문화예술대 항공보안학과(학과장 조성환)는 테러·방첩분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는 학과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서울경제신문과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되는 '제1회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를 오는 5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학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는 국내외 창업자 20여 명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청년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구축방안을 찾아보고자 10개 대학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인하대는 순회 대학 중 두 번째로 행사를 진행한다.

토크콘서트 1부에선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인하대만의 차별화된 창업생태계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데이터로 '중도탈락 학생' 예측

IR 정보시스템 구축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매 학기 수료 학생에 대한 학사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들의 성적 추이를 분석해 중도탈락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삼육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인 'IR (Institutional Research)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IR정보시스템은 삼육대 통합정보시스템(SU-WINGS)을 비롯한 기존 정

보시스템에서 생산, 축적되는 학생의 각종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해 유의미한 결과를 추론해내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분석 및 평가결과는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은 물론 학생지도와 교육의 질 개선 등에 활용된다.

기존에는 업무 담당자별로 독립적이고 단절된 통계자료를 얻었다면, 이제는 IR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간에 서로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이를 통해 다른 업무 영역 간 연관분석을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